

**담당 : 홍보팀 임정수 차장ㅣ Office : 02)560-4434 ㅣ Mobile : 010-7680-8653 ㅣ E-mail : media@klpga.org**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5’ 1R 오후조 주요 선수 코멘트**

**조혜림, 한진선, 홍정민**

**◈ 대회개요**

|  |  |  |
| --- | --- | --- |
| 1 | 대 회 명 |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5 |
| 2 | 기 간 | 2025년 7월 10일(목) ~ 7월 13일(일) |
| 3 | 장 소 | 하이원 컨트리클럽 [마운틴(OUT) / 밸리(IN)]  |
| 4 | 주 최 | 하이원리조트 |
| 5 | 주 관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 6 | 총 상 금 | 10억 원 (우승상금 1억 8천만 원) |
| 7 | 코스길이 | 파72 / 6,544야드 |
| 8 | 참가인원 | 108명 |
| 9 | 주요출전선수 | 고지우, 박혜준, 이예원, 홍정민, 이동은, 노승희, 이가영, 방신실, 김민선7, 박현경정윤지, 김민주, 박보겸, 유현조, 김시현, 송은아, 정지효, 배소현, 이다연, 서교림한진선, 임희정, 이정은6, 김정현, 오수민(A) 등 |
| 10 | 중계방송 | SBS골프, 네이버, 다음카카오, U+모바일tv |
| 11 | 방송일정(생중계) | [1라운드] 11시 ~ 17시[2라운드] 11시 ~ 17시[3라운드] 10시 ~ 16시[최종라운드] 10시 ~ 16시 |

**◈ 조혜림 1라운드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 \*단독 선두**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9136>

**노보기, 버디만 6개를 잡으며 1라운드 중간합계 6언더파로 단독 선두에 올랐는데, 1라운드 전반적인 평가는?**

- 일단 샷이 그렇게 잘 된 편이 아니었고, 요새 퍼트 감각도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초반에는 진짜 기대를 안 했다. 그런데 흐름을 좀 잘 탔던 것 같다. 오늘 뭐 특별히 잘 맞았다, 내세울 건 없지만 '오늘은 진짜 되는 날이었구나'라고 느꼈다. 미스 샷이 나와도 붙고, 잘 못 쳐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운이 따른 플레이가 이어졌다.

**'오늘이 진짜 되는 날이구나'라고 느낀 순간은?**

- 18번 홀이 전반 9번이었는데 214m에서 4번 유틸리티를 쳤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탑볼을 쳤는데 그것이 오히려 좀 굴러가서 운 좋게 버디를 했다. 그 순간에 오늘 좀 잘 되는 날이구나라고 직감했다.

**지난해(6위)도 그렇고 오늘도 하이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코스랑 잘 맞나?**

- 작년에 여기서 베스트 스코어를 기록할 정도로 잘 친 기억이 있는데, 코스 자체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코스는 아니다. 날씨 영향이 큰 것 같다.

**지난주 '제15회 롯데 오픈'에 기권한 이유는?**

- 감기 몸살이 좀 심하게 걸렸고, 지난 주에 너무 습하기도 해서 숨이 잘 안 쉬어졌다. 그러다 보니 집중이 아예 안돼서 대회에 계속 출전하는 것보다 일찍 병원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현재 회복은 거의 다 되었는데 아직도 콧물은 조금씩 흐른다.

**각오**

좀 쫄지 않고 자신 있게 치면 좋겠다. 그동안 컷 탈락에 대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남은 라운드는 컷탈락에 대한 신경을 덜 쓰고 좀 자신 있게 치고 싶다.

**◈ 한진선 1라운드 중간합계 5언더파 67타 \*공동 2위**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9426>

**[코멘트-대회조직위 제공]**

**경기 소감**

우선 하이원 와서 잠은 잘 자고, 컨디션은 좋은 상태다. 오늘 경기하면서 생각보다 잘 붙어서 거리 잡는 것보다 10M, 7M 미들퍼트, 롱퍼트가 많이 들어갔다. 이번에 잔디가 조금 길고 결을 많이 타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홀에 많이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하루였다.

**지난 하이원에서 우승 2번 하면서 ‘하이원의 여왕’이란 수식어가 붙었는데, 오늘도 전반적으로 경기하면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 보였다. 이 코스에 오면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을 해도 될 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지?**

어제까지 못 느꼈는데, 오늘 하면서 코스와 잘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코스 레이아웃과 본인이 잘 맞는지?**

잘 맞는 코스인 것 같다. 대체적으로 비거리가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웨지나 쇼트아이언 쪽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 하이원 코스는 티 샷이 페어웨이를 잘 지키기만 하면 핀 공략하기가 좋은데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10번 홀에서 약간 내리막이었는데 그린 스피드나 라인을 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결 파악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상황은 어땠는지?**

결이 많이 탄다고 말씀드린 것은 롱퍼트도 역결로 잔디가 선수쪽으로 누워있으면 많이 안 구른다. 홀쪽으로 누워있는 상황과 선수에게 누워있는 상황에 따라 그린 스피드가 0.34정도 차이 난다. 계산을 잘못하면 많이 지나가거나 짧아서 미스가 난다. 실제로 전반전 7번 홀에서 5M 정도 짧았다. 역결이었는데 부드럽게 쳐서 짧았기 때문에 10번 홀에 과감하게 쳤다.

**전반적으로 그린 색이 여러 가지가 있어 홀 공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한 홀이 있는지?**

핀 위치에 따라서 결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을 쓴 코스는 없다. 한번 칠 때마다 신중하게 치자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번에 기대감을 갖고 왔는지?**

주변에서 한정선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한다. 처음에는 잘 해야 할 것 같은 압박도 느꼈지만, 작년에 고지우 선수가 우승하면서 오히려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길 수 있었다.

**이번 대회 전망**

긴장만 안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고 기분 좋게 플레이했다. 성문안에서 우승을 놓쳐 속상하고 잠도 못 잤는데, 이겨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올해 안에 우승하려고 다짐했다. 이번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이원에서 성적이 좋아진 계기?**

하이원에서 연습을 많이 했고 결과까지 잘 이루어졌다. 계기가 있지 않더라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페어웨이를 지키면 유리하다고 했는데 오늘 4개 놓치고 아이언 2개 놓쳤다. 내일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롱퍼트가 많이 들어갔다. 내일은 샷 연습을 많이 해서 핀 공략을 바로 하려고 한다. 웨지를 오늘 많이 쳤는데 버디로 연결된 상황이 별로 없었다. 연습을 통해서 웨지 공략으로 조금더 버디 찬스 많이 만들고 싶다.

**◈ 홍정민 1라운드 중간합계 5언더파 67타 \*공동 2위**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9750>

**전반적인 경기 소감**

전반적으로 포스트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아쉬웠다. 시작은 좀 좋게 시작을 했는데, 후반에 많았던 기회를 놓치면서 어프로치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다.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나?**

약간 어프로치를 잡았을 때 미스가 좀 많았다. 욕심이지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

시즌 초반에 되게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샷도 그렇고 퍼트까지 생각만큼 잘 안 됐다.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했는데 계속 흔들려서 좀 우울하기까지 했다. 샷도 좀 교정하고 감각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 그래도 다시 좀 올라오고 있다. 좋았던 감각을 빨리 되찾고 싶다.

**코스는 어땠나?**

쇼트 아이언을 좀 더 잘 치면 스코어가 더 잘 나올 것 같다. 고지대라서 드라이버가 많이 나가고 티 샷도 정확성을 요하는 코스인 것 같다,

**각오는?**

남은 라운드도 티 샷은 감이 좋아서 지금처럼만 했으면 좋겠고 아이언으로 좀 더 잘 붙이고 싶고, 퍼트도 좀 잘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 이번 주는 꼭 톱텐을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